

2024. 2. 1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9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6450-7010
전시기획과장	채영	6450-7040
관련홈페이지 (서울공예박물관)	https://craftmuseum.seoul.go.kr/ > 공모전 > 뉴스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쪽

## 서울시, 우수 공예작가 발굴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결선 진출작 20건 선정

- 지난해 우수 공예작가 발굴 위해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제정…공모 첫 해 작품 157건 접수
- 서류심사(1차) 거친 결선 진출작 20건…금속, 도자, 유리, 목, 섬유 등 소재별 다양
- 실물심사(2차) 이후 최종수상작 8.19. 발표…수상작 포함한 결선 진출작 한달간 기념전시
- 시, “공예가의 예술 활동 의욕 고취, K-공예 우수성·매력 창구의 예술상으로 거듭나길 기대”

□ 서울시가 우리나라 현대공예 1세대를 대표하는 고(故) 유리지 작가의 뜻을 기려 우수 공예작가 발굴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유리지공예상’을 제정 및 공모한 가운데, 〈제1회 유리지공예상〉 결선 진출작 20건이 발표됐다.

○ <서울시 유리지공예상>은 유리지 작가의 유족들(대표: 유리지공예관)이 2022년 7월, 서울공예박물관에 유리지 작가의 대표작품 총 327점과 함께 공예상 운영 기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제1회 유리지공예상〉은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국내외 미공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1일(월)부터 올해 1월 15일(월)까지 36일간 작품접수를 받았다.

□ 공모 결과, 도자, 금속, 섬유, 목, 유리, 칠, 지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공예작가들의 작품 157건이 접수됐다. 이후 공예·미

술·무형유산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설(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예술성 ▲동시대성 ▲창의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 ▲예술성(30점)은 작품의 미적효과나 조형성 및 완성도, 사용된 재료의 조화로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고 ▲동시대성(30점)은 작품에 쓰인 재료·기법·디자인 등에 반영된 동시대 생활 및 예술 양식이나 제시된 공예 패러다임의 현재성, 대중의 관심 등을 평가했다. ▲창의성(20점)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의 반영 및 표현의 우수성 또는 실험성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실용성(20점)은 실제 생활에서 갖는 직·간접적인 기능이나 실용 개념의 내포 등을 평가했다.
-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설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금의 공예가 고민하는 작품의 주제성은 물론 재료의 실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통공예 기법과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하되 이를 답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창의적인 조형성과 시대성, 실용성을 표현한 작품, 재료와 기법 등의 과감하고 융합적인 표현을 한 작품도 다수 있어 이번 심사를 계기로 향후 유리지 공예상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커졌다”고 심사 소회를 전했다.

□ **결선 진출작 20건을 공예 소재별로 살펴보면 ▲금속 8건 ▲도자 4건 ▲유리 4건 ▲목 3건 ▲섬유 1건이다.**

- 결선에 오른 20인의 작가는 오늘날 이미 한국 공예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활발하게 작업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전통기술을 현대화하며 우리 공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장인도 다수 포함되었다.

- 결선 진출 작가(가나다 순) : 강석근, 고희승, 권인혜, 길성식, 김동인, 김수연, 박성훈, 신선이, 신혜정, 유진경, 이경노, 이인화, 이재익, 이태훈, 정명택, 정은진, 조성호, 주현수, 편예린, 한상덕

- 결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한 2차 실물심사는 오는 8월 중 열리며, 최종우승작은 8월 19일(월)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최종우승작을 포함한 20건의 결선진출작은 오는 8월 20일(화)부터 9월 29일(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1층 로비와 안내동 일부 공간에서 열리는 기념전시를 통해 한 달여간 시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최종 우승작에는 기념전시 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과 유리지공예관이 각각 제공하는 다양한 특전도 주어진다.
  - 서울시는 수상자에게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다음 회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 해당 수상작은 서울공예박물관의 다음 연도 작품 구입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이외에 서울공예박물관 내 ‘쇼윈도 갤러리’에서 후속 전시의 기회도 받는다.
  - 유리지공예관에서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최종 수상자에게 프랑스 파리 소재의 시테 데자르(Cite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3개월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검토하고, 개인전도 지원한다.
-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첫발을 내딛는 〈서울시 유리지공예상〉은 다양한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요 작가와 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시작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 유리지공예상〉이 공예가들에게는 활발한 예술 활동의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K-공예의 우수성과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권위있는 예술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개요 1부.  
 2.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결선 진출작 목록 1부.  
 2.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1차 심사위원명단 1부. 끝.

- 공 모 명 :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 참가자격 : 작품성이 뛰어나고 소재와 기술의 혁신을 가져온 대한민국 국적의 만 25세 이상 공예작가 및 팀
- 공고기간 : 2023. 9. 20.(수) ~ 1. 15.(월)
- 접수기간 : 2023. 12. 11.(월) ~ 1. 15.(월) 17:00
- 접수방법 : 1차 홈페이지 접수(홈페이지 주소) ※ 우편접수 불가  
2차 실물 접수
- 응모대상 : 최근 3년 이내 제작한 작품으로 국내외 미공개작 1건 1점  
(연작인 경우 1건 5점 이내)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등 8종(참가 신청서, 작품 사진, 작품 설명서, 작가 프로필,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저작권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선정규모 : 최종우승작 1건, 결선진출작 20건
- 선정기준 : 공예 작품의 예술성, 동시대성, 창의성, 실용성
- 선정방법 : 공예 관련 내·외부 전문가의 1·2차 심사 후 선정
- 문 의 처 : [sujin515@seoul.go.kr](mailto:sujin515@seoul.go.kr)

## 붙임 2

##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결선 진출작(가나다순)

연번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재질	크기(cm)	내용
1	지구의 언어 (2023)		강석근	노타나무 정제옷생옷 황동구리돌	48.5x40.5 x21.5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함지의 기본 형태를 만들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완성하였다. 함지의 내부는 옷을 열강 화기법으로 합쳐서 니뭇결을 그대로 살리고 표면은 옷과 흙, 구리, 황동으로 마키에 기법으로 마감하였다.
2	규칙적인 표시 (2023)		고희승	호두나무 아크릴·925은 ·래커	10.5x10 x2.5	거리의 횡단보도 등 일정한 간격을 가진 패턴에 착안하여 제작한 브로치 연작이다. 나무의 틈이나 갈라짐 등 버려지거나, 제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3	요람의 숨결 (2023)		권인혜	정은	15x15 x27.5	은선이 열풍될 때 움직이는 모양이 생명의 꿈틀거림과 같다는 착안에서 시작한 작품으로 수백 개의 선을 하나씩 구부리고 꼬아 나가며 불규칙하면서도 섬세한 형상의 기물을 제작하였다.
4	사물 (2024)		길성식	유리	47x47x36	형태와 빛의 조화에 작업의 방점을 둔 작품이다. 블로잉(Glass Blowing) 기법으로 형태를 잡은 뒤 연마 기법으로 표면에 격자를 새겨 넣었다. 양감이 풍부한 부드러운 곡면과 대비되는 격자 새김이 빛에 의해 돋보이도록 작업했다.
5	結紮맺을 결, 꽃봉오리 함 2403V (2024)		김동인	도자	24x13x40	도자 형성 방법 중 슬립 캐스팅(Slip Casting)의 페틀링(Fettling)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페틀링은 석고 몰드의 분할선에 의해 기물 표면에 생긴 틀 자국으로 대개는 지우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 조형화하였다.
6	스틸의 숲 어둠 05 (2023)		김수연	유리· 나무액자	54.5x50x4	유리실을 그리기 도구로 활용한 것이 특징인 작품이다. 얇은 유리실을 구부려 반복적으로 의자 이미지를 그려 넣었는데 드로잉과 유리 파우더가 겹겹이 쌓여 평면인 유리 속에서 은은하게 공간감이 드러난다.
7	VOID_#17 (2023)		박성훈	유리	48x48x50	고열의 액체 상태의 유리에 숨을 불어 넣는 블로잉(Glass Blowing) 기법으로 동그란 형태를 만들고 갈고 깎아내는 콜드워킹(Coldworking) 기법으로 표면을 장식한 작품이다. 집요하게 깎아낸 표면으로 인해 빛의 산란이 다채롭다.

연번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재질	크기(cm)	내용
8	피어나다 (2024)		신선이	순은·철· 옷칠	36×21	생명의 시작인 꽃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으로 각각의 곡률로 성형한 기물에 조선시대 화로나 촛대를 장식하던 전통 금속공예기법인 입사(入絲)로 꽃의 양면성과 잎맥을 형상화하였다.
9	숨겨진 이면 11 (2023)		신혜정	정은	13.5x25x6	자연물을 수집, 관찰하고 이를 스케치하여 제작된 장신구(브로치)이다. 주재료로 정은(sterling silver)을 사용하였고 자연물의 형태를 성형한 후 플래니싱(Planishing) 망치질로 표면을 마감하여 매우 정교하다.
10	별 헤는 밤 (2021)		유진경	참죽오동·무 흑단·뽕에 주석도금 백동	103.5x24.6 x51	조선시대 문갑형 악장과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차용하여 현대적 공간에 적합한 수납장을 제작하였다. 전통 소목에 금속의 주석도금 기술을 접목하여 회화적인 이미지의 가구에 새겼다.
11	백동 수복강녕 박쥐 앞닫이 (2024)		이경노 (박여숙 협업)	백동	55.1x15.3 x12.3	19세기 후반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백동 재료로 제작되었다. 백동앞닫이에는 수복강녕과 부를 기원하는 박쥐문이 조이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전통 기법과 미감을 현대화한 작품이다.
12	물질허상_감정의 기억 (2023)		이인화	백자	34.5x 30.8x32.5	단아한 미감의 기물로 유리질화된 기형의 안에 빛을 담아냈다. 백자소지를 128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작품으로 불거짐에 가까운 수준으로 얇고 섬세하여 자기임에도 높은 투광성을 가진다.
13	트랜지션 9 (2024)		이재익	동·포르린칼 러·금박	55x55x59.3	달항아리로부터 영감을 얻은 기물로 금속으로 형태를 잡고 그 위에 도자 안료를 발라 구워내었다. 덕분에 금속과 도자의 물성이 혼합한 독특한 표면 질감을 보인다.
14	해질녘의 민들레 홀씨 (2024)		이태훈	유리	46.5x46.5 x36	민들레 홀씨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리의 불투명성에 집중했다. 큰 색유 덩어리에서 얇은 유리실을 뽑은 뒤 이를 한데 모아 블로잉(Glass Blowing) 기법으로 숨을 불어 넣어 제작하였다.

연번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사진	작가명	재질	크기(cm)	내용
15	뚝 2301&2303 (2023)		정명택	청동	175x175x45	황룡사지 석물들의 규모와 형태, 표면 질감 등을 면밀히 관찰한 뒤 이것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품의 원형은 청동으로 구조되었는데 이것을 용접하고 갈아내고 색을 입히고 벗겨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금빛의 청동 벤치를 완성하였다.
16	다각형의 접는 발 (2023)		정은진	노방(실크)	100x130x7	노방과 감침질로 만든 다각형의 유닛 140개를 연결해 만들었으며 완전히 펼쳐 벽에 걸거나 합죽선과 같이 접을 수 있도록 하여 평면과 입체를 넘나든다. 노방 고유의 투명함은 단의 겹침으로 생기는 명도의 차이와 시접선의 두께 등을 통해 조형화되었다.
17	시간의 적층 (2023)		조성호	정은	27.5x14x46	주변의 구조물이나 역사적 장소의 표면을 소프트왁스로 탁본한 다음 정밀 탈납주조(Lost Wax Casting)로 금속에 옮겨 기물에 새겨진 흔적과 기억, 감정을 시각화하였다. 탁본 방식을 금속 기물에 처음으로 시도한 독창적인 작품이다.
18	미래에 대해 (2023)		주현수	Super White Slip	30x34x36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로 작업한 작품으로 슬립 캐스팅(Slip Casting) 기법으로 제작된 각각의 뼈를 접합하여 가마에서 구워내었다.
19	자연의 몽상 (2022)		편예린	백자·석기토·안료	29x24x14	자연의 침식과 풍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돌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이다. 돌에 새겨진 실제 흔적을 석고로 떠낸 뒤 점토를 눌러 형태를 잡고 여기에 작가가 작업 당시의 계절과 풍경 등에서 영감을 받은 감성을 도자 표면의 질감이나 색으로 표현하였다.
20	따라 그리기 (2023)		한상덕	황동·나무	23x20x38	나무와 금속으로 우화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조형물로 금속을 다루듯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 표면과 다양한 색과 질감을 덧입힌 금속 표면이 눈길을 끈다. 나무와 금속의 물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필터를 한 겹 씌운듯한 느낌으로 이것은 고도로 연마되고 정제된 재료 가공의 결과이다.

**붙임 3**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1차 심사위원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 설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 명예교수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이사 제22회 대한민국공예대전 심사위원	1차 심사위원장
2	 김진송	문화평론가, 목공예가 가나미술연구소 전문위원 현실문화연구 대표	
3	 김정후	장신구 작가 예올문화재단 자문위원 푸른문화재단 이사	
4	 임광순	경민대학교 교수 한국공예가협회 전시 이사 한국가구학회 부회장	
5	 김정석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교수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사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편집위원	
6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초빙교수 제3회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7	 강재영	맹그로브아트웍스 대표 202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 2020 밀라노 한국공예전 예술감독	
8	 조상인	서울경제 백상경제연구원 미술정책연구소 소장	
9	 심지연	월간미술 편집장 前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장	